

사회복지시설 탐방 27 포천나눔의집 관장 오상운

소외된 이웃,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활의 끈

“대한성공회 포천 나눔의 집(관장 오상운 신부)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포천시 군내면 구유리 688번지 향군회관 2층에 위치한 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 집은 2002년 4월 11일 성공회 교구의 지원으로 설치되어 포천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로 설립했다.

나눔의 집은 보건복지부 지정 경기포천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지원하는 살롱의 집과 어려운 이웃과 소중한 먹거리를 나누는 푸드뱅크,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재가복지센터,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설립을 목표로 하는 자활후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나눔의 집의 관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대한성공회 오상운(42) 신부에게 나눔의 집의 역할과 현황 등에 대해 들었다.

나눔의 집에는 각 사업단별 운영자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각각의 활동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살롱의 집은 포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금채 불이나 의료문제 등 인권 관련 상담을 위주로 월 1회 무료진료와 체육대회, 송년위안행사, 문화탐방 등 문화체육활동 및 각국의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한국이주노동자 건강협회 지부로서 462명의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인과 동등한 서비스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 관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이들의 실태조사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사회와 융화, 자발적인 귀환 프로그램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드뱅크 사업은 지난 2003년 7월 포천시로부터 푸드뱅크로 지정받아 성공회 푸드뱅크와 병행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100여가정의 독거노인과 10여곳의 영세시설, 동교4동(상계동마을)과 탈북주민 거주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들레 흙씨’라는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먹거리를 수거하는 일을 돕고 있는데, 앞으로 푸드마켓 등 저소득층 가정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재가복지센터의 경우 나눔의 집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등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방문, 대화, 생활지원, 의료지원활동을 통해 사회와 단절된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활동하고 있다.



대한성공회 포천 나눔의 집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왼편은 관장 오상운 신부)

이 사업은 가정봉사원 24명과 관리자 1명이 투입돼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시로부터 반찬배달을 위탁받아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로도복권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가정봉사원은 월 60만원정도의 실비를 받고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2년 7월부터 위탁받은 기관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일하는 성취감을 경험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자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현재 간병사업단, 영농사업단, 집수리사업단, 재활용사업단, 세차사업단 등이 구성돼 40명이 재원근로를 하고 있다.

오 관장은 “자활후견기관의 목적은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활을 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성공회 포천 나눔의 집은 인권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직원 중 6명은 자활후견인사업을 통해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전액 후원을 통해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오 관장은 “활동에 비해 포천 나눔의 집이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인 것 같다”며 “포천 나눔의 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후린 : 농협 225041-55-002106 (예금주: 포천나눔의집) 문의 : 031-532-2025 지혈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 심터

자기를 명품으로 만드는 방법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글로벌 시대에 자기의 브랜드를 높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인지 명품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대학가에도 명품족, 명품계가 성행한다고 하니 명품에 대한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다. 확실히 명품이라는 말은 이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모 방송사에서는 시청자들이 소장한 물건의 진위와 가치를 가리는 ‘진품명품’이라는 코너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진품과 명품을 가리는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역사성, 상태, 가치가 그것이다.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상태는 어떠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몇 번 보다

보니 이러한 기준이 꼭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자기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 3가지 기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분명 명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온고지신의 마음과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자기 관리,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조적 마음은 자신을 일류 브랜드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든다!

명품을 두른다고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명품 속에 있던 혼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을 명품으로 만드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영미의 첫소 사랑이야기 6

영천목장에 놀러오세요

가을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앞 눈에는 버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스치고 아침 공기는 상쾌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송이차 우유를 먹고 소료를 주었다. 오늘은 천사어린이집 원생들이 우리 목장 견학을 오는 날이다. 구석구석 손님맞이 청소를 하고, 목장 견학을 오면 우유생과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가산면 금현리

우유로 나와요”라고 설명

을 해주었다. 아이들은 첫소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우유 반대편을 먹으면서 목장 견학을 마쳤다.

아이들이 가고 난 후 뒷정리를 하면서 생각해본다. 원두막이 좁아 백합반, 국화반은 원두막 밑에 돛 자리를 펴고 앉아 음식을 먹었다. 원두막 옆 팔발방을 조정해 돌도 쌓고 잔디도 심고 돌 틀에 꽃나무와 소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잔디밭에 평상에 만들어 다음 목장 견학에는 유치원 어린이와 어머니가 함께 참여해 편하게 앉아서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며 즐겁고 유익한 목장 견학이 되도록 하려는 마음이다.

“어린이 여러분! 첫소들은 매일 아침, 저녁 두 번 기계를 젓을 짜주며 첫소가 송이차를 낳으면 우유

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 목장에 놀러오세요! 잔디밭 평상에 앉아 차 한잔 같이 마시며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가산면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 가산면민회는 지난 1일 오후 7시 가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가산면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가산면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

가산청년회 면민 노래자랑 개최

가산청년회(회장 원종호)는 지난 1일 오후 7시 가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가산면민 한마당 노래자랑을 개최했다.

이날 노래자랑은 가산면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가산청년회 1대 유경재 회장 등 역대회장 11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플라후프 대회결과

주부 1등은 이은미씨(가산면 금현리)가 차지했으며 학생부 1등은 김명우 학생(경복중1년)이 차지해 상

품을 받았다. 이어 진행된 노래자랑은 유경재 가산청년회 초대회장과 가산초등학교 김선욱 교사의 심사로 진행됐으며 1등 양춘희, 2등 유상숙, 3등 현영철, 4등 윤광숙, 5등 김홍섭, 인기상 주순옥씨들이 차지했다. 한편, 이날 노래자랑 수상자들에게 수여된 부상과 경품추첨권은 지역업체가 협찬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1등 드림세탁기(새남법무사 김영모) 2등 김치냉장고(솔모루웨딩홀) 3등 가구세트(가구공방 김정환) 4등 예초기(고려공구 신중문) 5등 용접기(명성전기 백승룡) 인기상 자전거(고인돌당구장) 경품추첨권(가산합인마트) 경품추첨권(고인돌 엔크리)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이동장암교회 노인잔치 마련

장암리 지역 50여명 노인 참석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소재 이동장암교회(담임목사 정태영)는 지난 6일 오전 12시 동네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마련하고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소재 이동장암교회는 지난 6일 오전 12시 동네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마련하고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노인들은 모처럼 따뜻한 음식제공에 감사하며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이날 잔치를 마련한 이동장암교회 정태영 목사는 “고령화시대에 노인경경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자주 노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욕봉사에 민·군 따로 있으나

포천 자혜의 집 목욕나들이



포천 자혜의 집은 지난 6일 자혜원 노인 300명, 봉사자 300명 등과 목욕나들이를 행사를 개최했다.

포천 자혜의 집(원장 최영식)은 지난 6일 노인 300명, 봉사자 300명 등과 목욕나들이를 행사를 개최했다.

시절 내에만 있던 자혜의 집 노인들은 이날 일출, 영중, 내촌면과 소흘읍 적십자 봉사원과 자매결연 한 육군 기무부대원 10여명 등의 도움으로 일출의 모 운전장에 목욕나들이를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이날 함께한 육군 기무부대원들은 지난 5일 자혜의집과 매주 목욕봉사 등 각종 봉사를 매주 실시하기로 자매결연 한 후 첫 번째 목욕봉사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날 목욕봉사는 자혜의 집과 지난 2003년부터 인연을 맺은 김우겸씨의 도움으로 5회째 실시되고 있다.

이동면에서 우목정이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김씨는 자혜의 집 노인들을 위해 봄과 가을 정기적으로 목욕봉사를 전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번 목욕봉사는 5회째이다. 최영식 원장은 “이번 목욕봉사는 오랫동안 자혜의 집에 목욕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김우겸씨, 적십자 회원들, 육군 기무부대원들이 함께 해 더욱 뜻 깊다”며 “거동이 불편해 바깥나들이 기회가 적은 노인들을 위해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혈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기초생활수급 노인 초청 잔치

포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소장 이종해)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포천시 신원동 유림회관 지하1층에서 경로잔치한 마음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포천지역의 독거노인 및 노인단체대중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된 100여가구의 노인들을 초청하게 된다.

포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경로의 달을 맞이해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셔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경로잔치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지혈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박혜자 · 포천동지부장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한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늘 처음처럼” 항상 변함없이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 박혜자(51.사진) 지부장은 금호생명 경기지역본부 포천영업소 수석팀장이다.

17년째 근무하면서 많은 실적을 올린 박 지부장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군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영북면 운천리에서 23년동안 살면서 컴퓨터와 같이 정확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지나온 세월동안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큰 빚을 지기도 했으나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지부장은 포천여성회관이 개편되면서 개설한 강좌를 열심히 수강하여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요리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현재는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꽃지도자반에서 꽃꽂이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실습작품이 나오면 포천동사무소에 선물하기도 한다.

(사)바르게살기운동 포천동협의회 부위원장, 포천동주민자치위원, 포천의제21 문화복지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중인 박 지부장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남을 돕는데 앞장서는 박 지부장은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에서도 주변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동전을 모아 약 50여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앞으로 70세까지는 일하겠다고 밝히는 박 지부장은 월세 3-4천원에서 시작했으며 가난은 죄가 아니고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 이라고 강조한다.

금호생명에서 17년동안 여왕상만 36회 수상한 저력을 바탕으로 왕성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박 지부장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기에 충분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조장희 · 선단동지부장

‘항상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노력

주부명예기자 활동 기반 제공하는 역할

지난 99년에 남편의 직장을 따라 포천에 이사는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선단동지부 조장희(36.사진) 지부장은 선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항상 있는 그대로”를 생활신조로 삼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조 지부장은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활동도 제대로 된다는 생각에 남편내조에 열의를 보인다.

포천에서 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남편은 조 지부장이 대담하게 연출하는 의상에 대해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만 입는다면 큰 문제가 안된다고 격려하고 있다.

조 지부장은 개방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격의 남편은 “하늘이다”는 생각으로 내조하고 있다고 한다.

포천신문과의 인연은 선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며 하면 할수록 능력이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특히 주부명예기자단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화중에 배워야 할 요소가 많고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서 좋다고 밝힌다. 단지 자신이 다른 주부명예기자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한다. 늘 감사하는 것은 다름이 없고 소리 없이 자란 아이들이 성격도 좋고 무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건강하게 하는 일이 큰 무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주부명예기자단 선단동 지부의 발전을 위해 뜻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고 주부명예기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이 분들의 뒷바라지가 곧 지부장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주변사람들에게 변화의 이 미지를 통해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조 지부장의 모습을 통해 포천신문에 보다 다양한 기사가 게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터뷰 김우겸 (이동면 우목정 대표)

“봉사위해 버스까지 구입했죠”

2003년부터 포천자혜의 집과 인연을 맺고 봄과 가을 정기적으로 목욕봉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김우겸(37·사진) 씨.

이동면 합곡대 맞은편에서 우목정이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김씨는 우연한 기회에 자혜의 집을 방문, 시설에만 있어 답답해 보였던 노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목욕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일 목욕봉사를 위해 5회째 자혜의집 노인들을 위한 목

욕비용 일체와 자신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김씨 제공 등 식사대접까지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공경의 사상이 없어도 점점 메달라 가는 요즘 시대에 노인들에 대한 공경을 펼침으로써 스스로 수양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싶다”는 김 씨는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더욱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올해 5월 대형면허를 취득, 45인승 대형버스를 구입했다. “사실 버스를 구입하게 된



것도 목욕봉사를 위한 것이었다”며 “버스로 노인을 수송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봉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봉사의 뜻을 확고히 했다. 지혈배 기자 94spice@hanmail.net